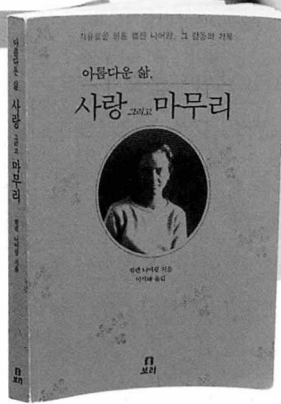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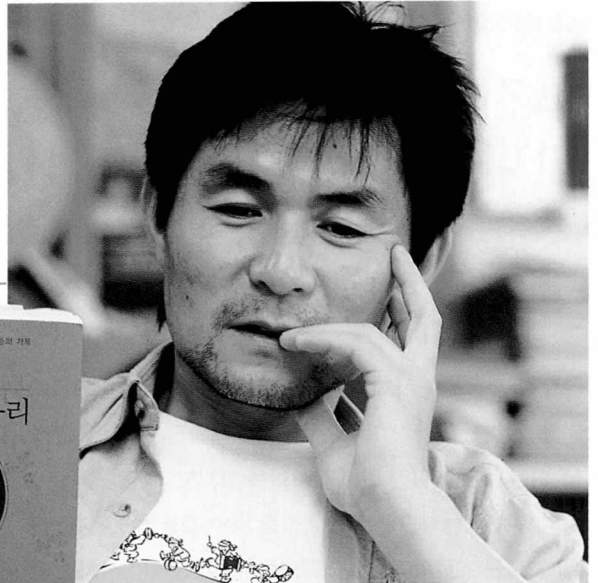


# 소박하고 느리게 산다는 것의 즐거움

가수 김현성씨가 뽑은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과정의 아름다움이에요. 버먼트의 오지에서 황무지를 비옥하게 가꾸는 과정은 그들의 삶 안에 소박함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죠.”

노래 <이등병의 편지>의 작사·작곡가로 유명한 가수 김현성씨(39)가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은 “책 좀 보냐”는 것이다. SBS <책하고 놀자>에서 주말마다 ‘노래로 듣는 독후감’을 맡아온 뒤로는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탓이다. 그는 또 가수 백창우·김원중, 시인 김용택·안도현·정호승 등과 함께 꾸린 시노래 모임 ‘나팔꽃’의 일원이기도 한데다 지난 6월까지의 월간 《베스트셀러》에 <김현성의 노래마을교실>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래저래 그는 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그가 서가에서 꺼내놓은 책은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이석태, 보리)다.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과정의 아름다움이에요. 버먼트의 오지에서 황무지를 비옥하게 가꾸는 과정은 그들의 삶 안에 소박함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죠.”

김씨는 이 책에서 긍정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의 소유는 바로 소박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은 아니지만 “당신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라. 얻은 것보다 덜 쓰라. 쓴 만큼 지불하라”는 말처럼, 아끼고 덜 쓰는 것이야말로 자연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김씨가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책 덕분이다.

니어링 부부가 그랬듯이 그는 자신의 삶 전체에서 소박함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의 집에는 장롱도 없다. 다른 가

구도 여기저기서 주워온 것이 대부분이다. 몇 년 만에 6천원짜리 운동화를 한결레 샀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는 나팔꽃을 심어 가을에 씨앗을 거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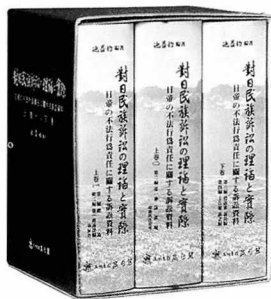
김씨의 소박함은 느낌과 닮아 있다. 니어링 부부의 삶의 과정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소박함과 함께 느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느리게 가면 주변의 모든 풍경을 찬찬히 살펴볼 수가 있죠. 그게 느낌의 즐거움이에요. 느리지만, 하나하나 토대를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김씨의 노래가 삶과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애정 있게 그려내는 것도 느낌이 삶에 배어 있는 탓이다. 그는 이미 세권의 노래시집을 낸 바 있다. 올해 말에는 노랫말 쓰기에 관한 책을 낼 예정이고 내년에는 음반과 함께 독후감 뒷얘기도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물론 결코 서두르지 않고, 매달 열리는 나팔꽃 공연도 계속 꾸려갈 것이다. —김정근 기자

## 對日民族訴訟の理論と實際

日帝の不法行爲責任に關する訴訟資料



對日民間法律救助會 會長 池益杓 辯護士 編著로 2001. 8. 15 光復節을 기하여 「對日民族訴訟の理論と實際」日本語版을 圖書出版 高句麗에서 出版하였다. 本書는 日帝와의 各種條約의 無效와 太平洋戰爭으로 因한 軍人, 勞務者, 從軍慰安婦 등의 各種 不法行爲에 대해 日本國에 對한 裁判關聯 訴訟資料 全文이다.

本 訴訟은 日本裁判所에 1992年 對日民族訴訟을 提起하여 現在 日本最高裁判所에 繫留中에 있다. 筆者는 發刊辭에서 本書는 韓民族의 國難克服의 民族白書로 後世에 알리고 北日國交正常化 交渉에 寄與되기를 밝히고 있다.

新菊版 洋裝/上(一)(二)卷·下卷 總3,510面/¥28,000円(₩280,000원) -300帙 限定版 注文販賣-

서울 銅雀區 上道銅 211-178(郵156-841) 도서조판 高句麗 電話 ; (02)822-5764, FAX ; (02)822-1703, HP ; (018)216-5764